

# 영암군, 지역 농가 대상 고품질 배 생산 돕는다

꽃가루·수분수묘목·복합비료 지원 50% 자부담 노동력 절감 결실률↑ 저온·고온 피해 예방 경감자재 공급 3월 말부터 각 읍면 복지센터 신청

영암군이 안정적인 배 생산이 이뤄지도록 재배 농가 지원에 나섰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4일 까지 '2025년 배 결실 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영암군은 재배면적이 300ha 이상인 배 주산지로 농업 소득에서 배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최근 기상 이상으로 결실 불안정, 수확량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배 농가가 고품질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 '꽃가루' '수분수묘목' '복합비료' 3종의 자재 지원에 나선 것.

영암군 주요 재배품종인 '신고배'는 자

가수분이 어려운 품종이지만 '설화리' '추황' 등 품종의 수입 꽃가루로 수정이 가능하다.

영암군은 농가와 각각 50%의 비용을 분담해 수입 꽃가루를 공급해 농가의 꽃가루 채취 노동력 절감, 배 결실률 제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 꽃가루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꽃가루를 확보하기 위해 '원황' '추황' 등 수분수묘목도 공급할 예정이다.

기상 이상에 따른 배꽃 및 과실 저온·고온 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자부담 40%로 미량 요소를 포함한 기상경감자재를 공급해 과실 정형 향상, 생산·수확량 증대도 지원한다.

3월 말부터 지원에 들어가는 이번 배 결실 안정 지원사업에는 영암군 배 재배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배



영암군의 한 배 재배농가에서 꽃가루 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암군 제공

농가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안정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목포시, 산불 방지 종합대책 편성 주민 계도·홍보 활동 강화 등

목포시가 2025년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민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전남도 산불관계관 회의에 참석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헬기 신속 투입과 감시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 조심 기간(1월24일~5월15일) 동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20명을 취약 지역에 배치해 예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초동 진화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내년도 해상수산사업 신청 접수 무안군, 28일까지

무안군은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신청받겠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 △인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 전반이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시행 지침의 자격요건과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무안군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중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 후 2026년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무안=김행민 기자

## 무안군, 장애 발생 예방 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목표

무안군은 오는 15일까지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장애 발생과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해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전문 인력이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낙상 예방 교육 △스포츠 스테핑 활동 균형 교육 △일상생활 속 균형증진 및 근력강화 운동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테이핑 요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무안=김행민 기자

## 전기·수소자동차 보조금 지원 목포시, 17일부터 접수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60대(승용, 화물)와 수소자동차 1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최대 1080만원, 화물차 최대 1850만원, 수소자동차는 대당 3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가 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목포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신청 시작일은 오는 17일부터이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ps>)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목포시 기후환경과(061-270-8675)로 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암시니어클럽 직원이 이불 빨래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시니어클럽은 영암농·축협과 전남공동모금회로부터 이동세탁차량을 전달 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동빨래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영암군 제공

## 영암시니어클럽, 기찬 이동 빨래방 서비스

영암군 영암읍의 요청으로 영암시니어클럽이 지난 11일 쌍정마을 등 3개 마을 50가구에 '기찬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진행했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찬 이동 빨래

방은 이동세탁차량으로, 이불 빨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찾아가 세탁에서 건조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기찬 이동 빨래방은 오는 28일까지 운

영된다. 한편 영암시니어클럽은 영암농·축협과 전남공동모금회가 1억5000만원을 후원해 마련한 이동세탁차량을 지난달 22일 전달받아 기찬 이동 빨래방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 신안군, '개인정원' 조성 주민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안군은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군은 개인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원주들에게 개인정원 명패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가꾸는 정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신안군청 직원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에게 '개인정원 명패'를 부여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받는 개인정원 등록자는 129명에 이르며 개인정원 등록 신청은 각 읍면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정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과수농가 화상병 사전 예방 총력 강진군, 겨울철 궤양 제거 당부

강진군이 사과·배 재배 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겨울철 나무 궤양제거를 적극 당부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과수 조직이 불에 탄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다 전체로 번지는 감염병이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궤양부위가 월동한 후 봄철에 다시 번지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궤양 제거가 화상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아직 전남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지만, 지난해 전북 무주까지 발생 사례가 보고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상병에 걸린 과수 조직은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터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의심이 되는 부위가 있으면 신속히 강진군농업기술센터(061-430-3661)에 신고해야 한다.

궤양 제거 방법은 본줄기쪽으로 40~70cm 떨어진 부위를 절단하고 자른 단면에는 소독약을 발라주는데, 이때 작업도 구도 같이 소독해야 한다.

강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기간을 오는 4월까지 지정 운영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강진군이 미발생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강진=김윤복 기자